

기술분석보고서 소재

아모그린텍(12521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그린텍(125210)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나노 멤브레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소재·에너지 솔루션 기업

기업정보(2026.09.10 기준)

대표자	김병규, 양성철
설립일자	2004년 1월 6일
상장일자	2019년 3월 29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고효율 자성소재,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시세정보(2026.09.10 기준)

현재가(원)	5,74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947
발행주식수	16,496,790주
52주 최고가(원)	16,750
52주 최저가(원)	4,350
외국인지분율	7.47%
주요주주	김병규 외 9인

■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산업용 ESS를 양대 축으로 전력·에너지 분야의 적용처 확대 중

아모그린텍(이하, 동사)은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첨단소재·에너지 시스템 기업으로,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나노 멤브레인 등 소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첨단소재, 기능성 소재부품, 에너지·환경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고효율 자성소재와 ESS를 중심으로 멤브레인·방열소재가 기존 매출을 보완하고 AMB 등이 중장기 성장사업을 구성한다. 향후 자성소재와 산업용 ESS의 고객·지역 다변화를 지속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고효율 전력변환장치 및 파워반도체 분야로 적용범위 확대가 주요 성장 방향으로 판단된다.

■ 전동화·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전력전자 고도화를 통해 성장하는 시장

목표시장은 전기차·ESS 및 산업용 전원장치 등에 적용되는 나노결정 연자성 코어 소재 시장으로, 나노결정 연자성 코어는 전력변환 효율 향상과 전자파 노이즈 저감, 부품의 소형·경량화에 기여하며, 합금 조성·급속응고·열처리·권취 등 고도의 소재 및 공정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 전동화, SiC·GaN 기반 전력반도체의 고주파화, ESS·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밀도 상승에 힘입어 성장이 예상된다.

■ 고효율 자성소재·산업용 ESS 중심 사업구조 강화 중

동사는 사업구조를 고효율 자성소재·나노 멤브레인과 산업용 ESS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SiC 파워반도체용 AMB, Metallic Converter, 수처리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생산거점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해외 고객 대응과 생산기반 확충이 진행 중이고, 자성소재의 적용처는 전기차·ESS에서 피지컬 AI, 고출력 전원장치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향후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산업용 ESS를 주축으로 고객·지역·응용처를 다변화하고, 신사업의 양산 전환이 추가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1,476.0	3.8	122.9	8.3	130.2	8.8	20.9	8.3	150.8	789	4,169	15.4	2.9
2024	1,285.7	-12.9	44.7	3.5	21.2	1.6	3.0	1.2	147.0	129	4,286	45.7	1.4
2025	1,306.0	1.6	93.8	7.2	59.0	4.5	7.8	3.2	133.9	357	4,917	17.0	1.2

기업경쟁력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연결하는 수직적 사업화 역량	소재 조성·미세구조 설계에서 제조공정, 부품화 및 시스템 적용까지 자체 기술을 연계해 고객 요구에 맞춘 제품 개발 가능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기반	4개 전문 연구소와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노섬유·자성 소재·배터리·박막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축적
국내외 생산·사업화 체계	국내 생산거점과 베트남 생산법인을 활용해 양산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 확대에 맞춰 생산능력과 글로벌 공급체계 강화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나노결정 전자성 합금·코어 기술	급속응고와 합금·열처리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Powder Core, CMC, CT 등을 제조하며 전기차·ESS·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장치에 적용
AHE 기반 나노섬유 멤브레인 기술	미세기공과 3차원 나노섬유 구조를 제어해 방수·통기·통음 기능을 구현하며 모바일용 Acoustic Vent와 자동차용 Air Vent 등에 적용
ESS·SiC 전력전자 응용기술	LFP 배터리 기반 BMS·냉각·차단 시스템을 결합한 산업용 ESS와 SiC 파워반도체용 AMB 기판·접합·방열기술을 통해 에너지·고출력 전력전자 분야로 사업 확대

시장경쟁력

전동화·에너지 인프라 성장시장 대응	전기차, ESS,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전력변환 시장의 확대에 직접 연계되는 자성소재와 에너지 시스템 제품군 확보
글로벌 고객 및 적용지역 확대	기존 해외 고객과의 공급경험을 바탕으로 통신 인프라·자동차·전력전자 분야에서 지역과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입 기반 보유
다양한 전방산업을 통한 시장 대응력	모바일·자동차·통신·신재생에너지·파워반도체 등 복수의 전방시장에 제품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산업의 수요변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사업구조 확보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나노결정 전자성 소재, 나노 멤브레인, 산업용 ESS 및 SiC AMB 등 전기차·에너지·전력전자 분야의 효율·안전·열관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군을 보유하고 있다.	합금 조성·나노구조 설계부터 급속응고·열처리·코어 가공, 나노섬유 제조 및 시스템 통합까지 복수의 기술을 자체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은 차별화 요소로 판단된다.	자성소재 공정조건과 설계 노하우, 나노섬유 제조기술, 고객별 응용설계 경험 및 다수의 IP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으로 단기간 내 모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전문 연구소와 국내외 생산거점 기반으로 소재개발·공정·제품화·고객 대응을 연결하고 있으며, 베트남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사업화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I. 기업 현황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산업용 ESS를 양대 축으로 전력·에너지 분야의 적용처 확대 중

동사는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첨단소재·에너지 시스템 기업으로,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나노 멤브레인 등 소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고객은 전기차·ESS·전자기기 업체와 통신·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첨단소재, 기능성 소재부품, 에너지·환경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고효율 자성소재와 ESS를 중심으로 멤브레인·방열소재가 기존 매출을 보완하고 AMB 등이 중장기 성장사업을 구성한다. 향후 자성소재와 산업용 ESS의 고객·지역 다변화를 지속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고효율 전력변환장치 및 파워반도체 분야로 적용범위 확대가 주요 성장 방향으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19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소재·부품 및 에너지 시스템 기업이다. 설립 이후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나노섬유 멤브레인 등 소재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한 뒤 ESS(Energy Storage System), Flexible Battery, SiC(Silicon Carbide) 파워반도체용 AMB(Active Metal Brazing) 모듈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동사의 수익구조는 고효율 자성소재와 나노 멤브레인 등 기능성 소재·부품을 글로벌 전기차·ESS·전자기기 업체에 공급하는 소재사업과 LFP(Lithium Iron Phosphate)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용 ESS를 통신·신재생에너지 등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 제품은 전력변환장치의 전력손실을 줄이는 Powder Core와 CMC(Common Mode Choke), 스마트 미터용 CT(Current Transformer), 스마트폰·자동차에 적용되는 방수·통음용 나노 멤브레인 Vent, 전자 기기용 방열소재, 산업용 LFP ESS 등이다. 고효율 자성소재는 합금 조성 설계, 급속응고, 분말화, 권취·열처리·절단 등의 소재·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나노 멤브레인은 AHE(Advanced Hybrid Electrospinning) 기술을 이용해 미세 나노섬유 구조를 형성하여 방수·통음·투습 특성을 구현한다.

국내 생산거점과 베트남 아모그린비나에서 생산하고 있고, 자체 생산과 국내외 외주생산을 병행한다. 2025년 이후 아모그린비나의 건물과 생산설비를 확대하며 해외 생산기반도 보완하고 있다. 이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확보에 유리한 반면, 해외 생산 및 외주공정의 품질·납기·원가 관리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고객군은 전기차·ESS 업체, 모바일·전자기기 제조사, 자동차 전장업체, 통신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다. 테슬라·리비안 등 전기차·ESS 업체와 자성소재를 거래하고 있고, 통신용 ESS는 국내 통신사 공급에 이어 소프트뱅크와 KDDI 등 일본 통신사로 공급지역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2004.01	법인 설립
2007.04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산업자원부)
2014.07	나노코리아 2014 어워드 국무총리상 수상
2015.10	IR52장영실상 수상
2016.06	(주)나노캐스트테크 흡수 합병
2019.03	코스닥 시장 상장
2019.12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2020.09	녹색혁신기업 선정(환경부)
2021.11	나노융합성과전 대통령 표창 수상
2022.11	세계일류상품인증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동사 IR자료(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나노결정 합금, 나노섬유, 박막 및 방열 소재 등 복수의 소재 플랫폼과 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설계·공정 기술이다. 향후 고효율 자성소재와 산업용 ESS의 고객·지역 확대를 우선 추진하면서 AI(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센터용 전력장치, SiC 파워반도체용 AMB 모듈 및 로봇 등 고전력·고효율 응용분야로 소재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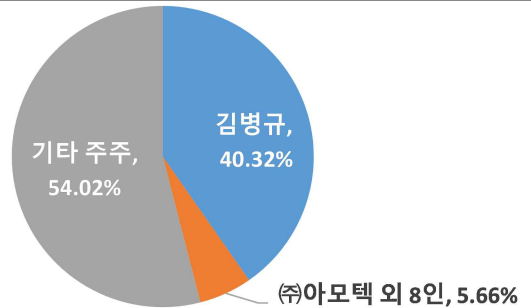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8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병규로, 전체 발행주식(16,496,790주) 중 6,651,36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40.3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아모텍 외 8인의 특수관계자가 934,451주(5.66%)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45.98%이다. 한편, 나머지 8,910,979주(54.02%)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2026년 8월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추가되면서 지배구조 측면에서 점검할 요인이 확대되었다. 김병규 대표이사는 신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계약이 설정된 주식은 총 2,713,650주로 총발행주식의 16.45%까지 증가하였다. 주식담보대출 확대가 경영권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주주 측 보유지분과의 연결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중 상당 부분에 담보가 설정된 만큼 향후 주가 하락 등에 따라 담보유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 담보 제공이나 담보주식 처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지배구조 리스크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사의 지배구조는 최대주주 측의 높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담보계약의 변동과 최대주주 지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김병규	6,651,360	40.32%	최대주주
(주)아모텍 외 8인	934,451	5.66%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8,910,979	54.02%	
합계	16,496,790	100.00%	



자료: 동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부문은 첨단소재, 기능성 소재부품, 에너지·환경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첨단소재 부문은 고효율 자성소재, 방열소재, 나노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며 동사의 주력 사업부문이다. 고효율 자성소재는 나노결정 합금의 높은 투자율과 낮은 보자력 및 와전류 손실을 활용해 전력변환 과정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소재로, Powder Core, CMC, CT 및 전류센서 등의 형태로 전기차, ESS, 충전기, 신재생에너지 인버터 및 스마트미터 등에 적용된다. 나노 멤브레인은 나노섬유의 미세 다공성 구조를 이용해 방수·통기·통음 기능을 구현하는 소재로 스마트폰과 자동차 전장부품 등에 적용되며, 방열소재는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의 전자파 차폐 및 열관리를 지원하는 SCA(Shield Can Adhesive)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현재는 고효율 자성소재와 나노 멤브레인을 보완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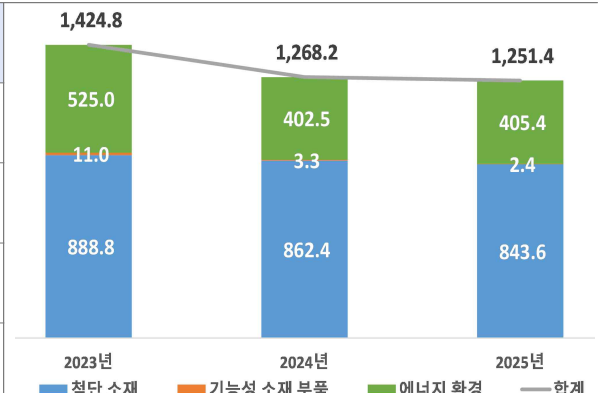
기능성 소재부품 부문은 Flexible Battery 중심의 사업으로 현재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Flexible Battery는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특성을 구현한 소형 이차전지로 스마트워치와 헤드셋 등 웨어러블 기기를 주요 적용처로 한다. 관련 양산기술과 인증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매출규모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실적 기여보다는 웨어러블 기기 확대에 대응한 중장기 사업화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에너지·환경 부문은 ESS, AMB 및 Metallic Converter로 구성되며, 현재는 ESS가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ESS는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통신기지국,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배터리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냉각시스템 및 고전압 차단기 등을 결합해 공급된다. 동사의 최대 단일 제품군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ESS 매출 대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해 해외 통신·에너지 인프라 수요의 영향이 큰 구조다. AMB는 SiC 파워반도체용 세라믹 기판·모듈로 2026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Metallic Converter도 선박·발전소용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시스템에 적용되는 금속 촉매지지체로 2026년 상반기 매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에너지·환경 부문은 ESS를 핵심 수익사업으로 하고 AMB와 Metallic Converter를 향후 고객 인증 및 양산 확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성장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3] 동사의 제품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첨단소재	888.8	62.4%	862.4	68.0%	843.6	67.4%
기능성 소재부품	11.0	0.8%	3.3	0.3%	2.4	0.2%
에너지·환경	525.0	36.8%	402.5	31.7%	405.4	32.4%
제품 매출 합계	1,424.8	100.0%	1,268.2	100.0%	1,251.4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조직은 영업총괄을 중심으로 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및 영업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는 직영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고객사의 생산계획과 발주량 변화가 매출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신규고객 확보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반복 발주와 고객 내 적용 모델·지역 확대가 매출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효율 자성소재와 ESS는 모두 기술영업의 성격이 강하다. 자성소재는 적용제품의 전압·전류·주파수와 요구 손실특성에 따라 합금 조성, 열처리 및 코어 규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재료 역시 제품 세대와 규격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비중이 높다. ESS도 통신기지국, 풍력설비 등 적용처별로 저장용량, 요구 백업시간, 충·방전 조건 및 설치환경이 달라 고객별 BMS와 회로·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설계 제안, 샘플 평가, 고객 인증과 현장 검증을 거쳐 양산공급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객 확보의 핵심이다.

경쟁전략은 고객 맞춤형 기술 대응과 소재·공정 내재화를 통한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노결정 자성소재는 합금 조성부터 코어 설계까지 고객별 요구조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며, ESS는 소형·산업용 시장에서 BMS와 회로설계를 고객 사양에 맞게 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다만 높은 수출비중과 글로벌 고객 의존도는 고객사의 생산계획과 설비투자 시기, 환율 및 지역별 정책 변화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사의 판매모델은 기술 승인과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고객 관계를 장기화하는 동시에 고객·지역·응용처를 분산하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구조다.

II. 시장 동향

전동화·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전력전자 고도화에 힘입어 성장하는 시장

목표시장은 전기차·ESS·충전기·신재생에너지 인버터 및 산업용 전원장치 등에 적용되는 나노결정 연자성 코어 소재 시장으로, 나노결정 연자성 코어는 전력변환 효율 향상과 전자파 노이즈 저감, 부품의 소형·경량화에 기여하며, 합금 조성·급속응고·열처리·권취 등 고도의 소재 및 공정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 전동화, SiC·GaN 기반 전력반도체의 고주파화, ESS·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밀도 상승에 힘입어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선도업체와 중국 업체 간 경쟁, 원재료 가격 변동 및 고객별 인증 부담이 존재하므로, 향후에는 고주파·고출력용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응용처 다변화가 시장 대응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 나노결정 연자성 코어 소재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전기차·ESS·충전기·인버터·전원장치 등에 적용되는 나노결정 연자성 코어 소재 시장이다. 연자성 소재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 쉽게 자화되고 자기장이 제거되면 빠르게 탈자되는 소재로, 전력변환 과정에서 자속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나노결정 연자성 코어는 합금 조성과 급속응고, 열처리 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자기적 특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일반 급속가공 제품과 차이가 있다. 급속응고 설비 운용능력뿐 아니라 합금 조성, 리본 두께의 균일성, 열처리 온도와 자기장 조건에 따라 투자율·보자력·포화자속밀도·코어손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재 설계와 양산 공정제어가 시장 진입의 주요 기술장벽으로 작용한다. 고도의 공정기술을 대량생산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기술축적이 필요한 시장이다.

수요는 독립적인 소재 소비보다 전방 전력전자 장치의 설계와 생산에 연동되어 발생한다. 전기차에서는 인버터와 OBC(On-Board Charger), 직류-직류(DC-DC) 컨버터 및 충전기에, ESS에서는 PCS(Power Conversion System)와 각종 필터·센서에, 태양광·풍력에서는 인버터와 전력변환장치에 코어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ESS의 판매량뿐 아니라 전력변환장치의 고출력·고주파화, 충전전압 상승,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전력효율 기준 강화가 실제 소재 수요를 결정하는 구조다.

제품 경쟁력은 동일한 전력처리 성능을 얼마나 작은 부피와 낮은 손실로 구현할 수 있는지로 결정되는 편이다. 나노결정 소재는 높은 포화자속밀도와 투자율, 낮은보자력 및 고주파 코어손실을 갖기 때문에 적은 권선으로 높은 인덕턴스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동손과 권선 정전용량을 줄이면서 필터 크기를 축소할 수 있다. 반면 제조공정의 난도가 높아 범용 페라이트와 비교할 때 제조원가의 부담이 존재하여, 단순 소재가격보다는 전력손실·부품 수·제품 크기 등을 포함한 시스템 단위의 경제성이 채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관련하여 글로벌 연자성 재료 시장은 2024년 112.0억 달러에서 연평균 6.1%로 성장해 2029년에는 15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나노결정 코어 시장은 2025년 5.8억 달러에서 연평균 11.8%로 성장하여 2032년에는 1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의 주요 성장요인은 자동차 전동화와 전력전자 장치의 고도화다. 2025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00만 대를 넘어 전체 신차 판매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2026년에는 약 2,300만 대, 비중은 28%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트랙션 모터뿐 아니라 인버터, OBC, DC-DC 컨버터

및 급속충전기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이들 장치에서는 전력변환 효율 향상과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저감이 중요한 설계요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SiC와 GaN(Gallium Nitride)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적용 확대로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고주파 영역의 손실과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투자율과 포화자속밀도, 낮은 고주파 손실을 갖는 나노결정 소재는 CMC와 필터의 소형·경량화에 유리한 소재로 채택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SS, 신재생에너지 및 AI 데이터센터의 성장도 추가적인 수요 확대 요인이다.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저장설비 신규 설치량은 108GW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와 함께 인버터·PCS에 사용되는 인덕터, CMC, CT 등 자성부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은 2025년 약 485TWh에서 2030년 약 950TWh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소비 증가에 따라 서버용 전원공급장치,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및 고출력 전력변환·배전 시스템의 효율 개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중심이던 수요가 ESS·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등 고효율 전력변환이 요구되는 분야로 확장되면서 중장기 시장기반은 점차 넓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효율 규제와 전력망 투자 확대도 저손실 자성소재 전반에 긍정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배전변압기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2029년부터 신규 기준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력망 증설과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해 변압기·인버터 등 전력기기의 효율 향상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노결정 소재의 직접적인 성장동력은 전기차, 충전기, ESS 및 고주파 전력전자 장치에서의 고출력·고효율·소형화 요구에 있으며, 전력효율 규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시장 확대와 함께 경쟁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나노결정 코어는 현재 소수 선도기업의 기술·고객 기반이 강한 시장이지만 중국 소재업체의 생산능력 확대와 원가경쟁력이 중장기적 가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철·니켈·망간 등 원재료 가격과 무역정책 변화는 제조원가를 변동시키며, 고객사가 원가 상승분을 전부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소재업체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페라이트·비정질 소재는 적용 주파수와 출력, 비용 조건에 따라 여전히 경쟁력 있는 대체재이므로 나노결정 소재의 시장확대는 모든 전력전자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되기보다 고주파·고출력·소형화의 경제성이 충분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변화는 동시에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한다. 전기차, ESS, 충전기, 신재생에너지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변환 고도화는 고주파·고효율 자성소재의 적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선도기업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고객 인증기간, 원재료 가격 변동과 특정 고객에 대한 매출 집중은 주요 부담요인이다. 따라서 향후 성장의 핵심은 고객과 응용처를 다변화하고 고주파·고출력용 나노결정 소재의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데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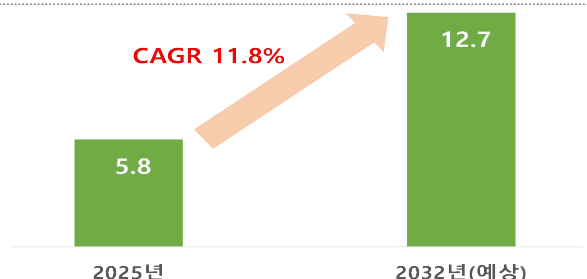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연자성 재료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글로벌 나노결정 코어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TDB 시장정보, Reports and Markets,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나노결정 연자성 소재·나노섬유 멤브레인·열관리·ESS 기술 기반의 기술역량 보유

동사는 나노결정 연자성 합금, 나노섬유 멤브레인, 열관리·전자파 제어소재, 산업용 LFP ESS 및 SiC 파워반도체용 AMB 기판 등 복수의 소재·응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 설계에서 공정·부품화·시스템 적용까지 연결하는 제품화 역량을 강점으로 한다. 연구개발은 4개 전문 연구소를 중심으로 주력 소재의 고성능화, 파워반도체·배터리 분야 확장, 환경·통신 등 신규 응용처 개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나노섬유, 자성소재, 배터리, 박막필름, 나노분말 등 다양한 기술군에 걸쳐 구축되어 있으며, 최근 고주파 자성소재, 반도체 접합·방열 및 차세대 배터리 소재 관련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Flexible Battery의 KC·IEC 인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인증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소재 자체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 부품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능력에 기반한다. 주요 기술은 나노결정 자성소재, 나노섬유 멤브레인, 방열·전자파 제어소재, 산업용 ESS, 파워반도체용 세라믹 기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재의 성능을 결정하는 조성·구조 설계부터 제조공정, 부품 설계와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까지 직접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노결정 연자성 합금 및 코어 설계·제조기술은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다. 금속을 매우 빠르게 냉각해 얇은 리본 형태의 자성소재를 만들고, 합금의 배합과 열처리 조건 등을 조절해 전기가 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류 변화를 안정시키는 Powder Core, 전기회로의 불필요한 전자파 노이즈를 제거하는 CMC, 전류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CT 등을 생산한다. 이러한 제품은 전기차, ESS,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등 전력변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치에 사용되며, 동사는 소재 제조뿐 아니라 제품의 크기와 형상, 성능까지 고객 요구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AHE(Advanced Hybrid Electrosinning) 기반 나노섬유 멤브레인 기술은 매우 가는 섬유를 그물망처럼 쥘아 미세한 구멍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물은 차단하면서 공기와 소리는 통과시키는 소재를 만드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의 스피커·마이크·충전부나 자동차 전장부품 등에 적용되어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도 공기와 소리가 원활히 통하도록 한다. 같은 기술을 활용해 기공의 크기와 구조를 조절하면 수처리 필터나 공기정화용 필터 등으로 확대할 수 있어, 하나의 나노섬유 제조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

열관리·전자파 제어 복합소재 기술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자파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다. 전자부품이 작아지고 성능이 높아질수록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열과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제품 성능과 수명이 저하될 수 있다. 동사의 SCA는 전자파 차폐 부품에 방열 기능을 결합하고, HTF(Hybrid Thermal Film)는 특정 부분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열을 주변으로 분산시킨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반도체 패키지, 고출력 전력전자장치 등 열관리 중요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산업용 LFP ESS 통합설계 기술은 배터리 자체를 제조하는 기술보다는 여러 구성요소를 안정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전력저장 시스템으로 만드는 기술에 가깝다. 동사는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BMS, 냉각장치, 고전압 차단장치 등을 함께 설계해 통신기지국,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공급한다. 산업용 ESS는 설치 장소마다 필요한 전력량과 사용시간, 온도 및 공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제품보다 고객 환경에 맞춘 설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맞춤형 시스템 구성능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은 사업영역별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부설연구소는 고효율 자성 소재와 Nano Ink, 신소재연구소는 Nano Fiber 소재·응용·공정, 기술융합연구소는 Battery, 복합소재 연구소는 고효율 자성소재·방열소재·Nano Ink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각 연구소가 소재 원천기술과 응용제품 개발을 분담한다.

최근 연구개발의 첫 번째 축은 주력 소재의 고성능화와 적용영역 확대다. 고평화자화 자성소재를 기반으로 고주파·고효율 자성복합부품을 개발하고 시장 요구특성에 맞춰 실증하는 과제를 수행했으며, 나노섬유 분야에서는 IP68 이상 방수와 1dB 이하 음향손실을 목표로 한 고성능 통음 원단, ePTFE 기반 고성능 HEPA 필터 및 초극세 나노섬유 복합부직포의 롤투를 생산기술 등을 개발해 왔다. 고주파 전력전자와 자동차, 고성능 여과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제품 사양을 상향하는 방향이 나타난다.

두 번째 축은 파워반도체·배터리 분야로 기술 확장이다. SiC·GaN 전력반도체 접합용 Ag Sintering Paste/Film의 국산화 및 양산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Cu 접합소재로 확장해 고객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 유연전지 개발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Si계 합금을 급속고화해 이차전지 음극활물질로 구현하는 기술도 권리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 나노결정 합금의 급속응고·분말화 역량과 배터리·접합기술을 새로운 전방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연구 흐름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축은 소재기술을 환경·통신 등 신규 응용제품으로 전환하는 연구개발이다.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수처리·하수처리 및 필터에 적용하고, 입체형 금속구조체를 NOx 저감용 촉매지지체로 개발했으며, 5G 통신부품의 전자파 노이즈 저감을 위한 저반사·고흡수 복합소재도 개발해 왔다. 연구과제 상당수가 제품화, 고객 협업평가 또는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있어 동사의 연구개발은 보유 소재 플랫폼을 새로운 응용처로 전환하는 사업화 지향형 구조에 가깝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 전략은 개발된 완제품의 단일 구조를 보호하기보다 소재 조성, 제조공정, 부품 구조 및 응용제품을 단계적으로 권리화하는 방식에 가깝다. 기술분류에서는 Nano Fiber 관련 권리가 가장 큰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Battery, Metals, 박막필름, Nano Powder 등으로 권리범위가 분산되어 있어 단일 제품보다 복수의 소재 플랫폼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다.

최근의 등록권리는 기존 사업의 방어뿐 아니라 향후 사업방향도 보여준다. 자성소재에서는 높은 투자율과 낮은 코어손실 및 복잡한 형상 구현을 목표로 한 연자성 합금 코어 구조체가 권리화되었고, 방열·전자파 분야에서는 상변화 소재를 이용한 방열 계면부재와 3차원 금속피복 섬유웹 기반 전자파차폐시트가 등록되었다. 파워반도체 분야에서는 세라믹 기판 유닛, 다층 금속접합 세라믹 기판, 전도성 페이스트 및 칩 실장·접합 기술이 권리화되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도 급속고화공정을 이용한 Si계 음극활물질용 합금 제조기술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무게중심은 기존 나노섬유 중심의 폭넓은 포트폴리오 위에 고주파 자성소재, 반도체 열관리·접합 및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MOMEMBRANE, AMODUST, AMOFLEX, AMOGREENCELL 등 멤브레인·자성소재·배터리 사업과 연계된 상표권을 확보해 제품 식별성과 사업화 단계의 브랜드 권리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인증 측면에서는 Flexible Battery가 국내 KC와 국제 IEC 인증을 확보한 뒤 양산된 이력이 있으며, 나노 멤브레인 Vent는 IPX8 수준의 방수성능을 구현해 모바일·자동차 분야의 적용요건에 대응하고 있다.

■ PEST 분석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투자 정책은 동사의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ESS 수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대와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는 고효율 전력변환 부품의 채택을 촉진할 수 있으며, ESS 분야에서도 전력 안정성과 안전성 관련 기준 강화가 시스템 설계 역량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주요 시장의 보조금·통상정책 변화와 공급망 현지화 요구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동사에 기회와 부담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전기차, ESS, 신재생에너지 및 AI 데이터센터 투자의 확대는 고효율 자성소재와 전력저장 시스템의 중장기 수요기반을 넓히는 요인이다. 반면 철계 합금과 배터리 셀 등 원재료 가격, 환율 및 고객사의 설비투자 시기 변화는 수익성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글로벌 고객과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실적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지역·응용처 다변화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와 전자기기의 고성능·소형화에 대한 수요 증가는 동사의 소재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확산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스마트기기의 방수·통음 기능, 산업시설의 안전한 에너지저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효율 자성소재, 나노 멤브레인 및 ESS의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화재와 전력설비 장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장기 신뢰성 확보가 거래선 유지의 핵심요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SiC·GaN 기반 전력반도체의 확산과 전력전자 장치의 고주파·고출력화는 낮은 손실과 높은 투자율을 갖는 나노결정 연자성 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동사의 핵심 자성소재 기술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변화다. 동시에 AHE 기반 나노섬유 멤브레인, 고기능 방열·전자파 제어소재, BMS·냉각·차단기 기반 ESS 통합설계, SiC용 AMB 기관·접합 기술 등으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기존 소재 대비 성능·원가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개발기술을 고객 승인과 양산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향후 기술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원가구조 개선으로 이익 정상화, ESS 중심의 성장동력 확대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1,476.0억 원, 2024년 1,285.7억 원, 2025년 1,306.0억 원으로 2024년 외형이 축소되었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소폭 회복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 2024년 크게 위축된 이후 2025년 매출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 93.8억 원, 당기순이익 59.0억 원을 기록하며 이익창출력이 회복되었다. 재무안정성은 2025년 자기자본 확대와 현금성자산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 부담이 완화되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투자 및 자금조달 확대로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유동비율과 자기자본이 개선되어 전반적인 재무 대응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SS와 나노 멤브레인이 이끄는 매출 기반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1,476.0억 원, 2024년 1,285.7억 원, 2025년 1,306.0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1.6% 증가하였다. 2025년 매출은 아직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고효율 자성소재와 ESS를 중심으로 매출 기반이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고효율 자성소재]는 2023년 505.0억 원, 2024년 520.2억 원, 2025년 494.0억 원으로 500억 원 안팎의 매출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방열소재]는 같은 기간 102.0억 원, 66.4억 원, 50.2억 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나노 멤브레인 소재]는 281.8억 원, 275.8억 원, 299.4억 원으로 2024년 소폭 감소한 이후 2025년 반등하였다. 기능성 소재부품에서는 [FPCB]가 2023년 9.4억 원, 2024년 0.9억 원을 기록한 뒤 2025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Flexible Battery]는 1.6억 원, 2.4억 원, 2.4억 원으로 매출 규모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에너지환경 부문의 [ESS]는 2023년 524.8억 원에서 2024년 399.4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 399.4억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AMB]는 0.2억 원, 3.1억 원, 1.8억 원을 기록하였다. [Metallic Converter]는 2023년과 2024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5년 4.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기타] 매출은 2023년 51.2억 원, 2024년 17.5억 원, 2025년 54.6억 원으로 2024년 감소 이후 크게 회복되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665.3억 원으로, 고효율 자성소재 241.3억 원과 ESS 263.9억 원이 주요 매출 기반을 형성하였다. ESS 매출 비중이 39.7%까지 확대되면서 첨단소재 중심에서 에너지환경 부문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고효율 자성소재의 ESS·전기차 등 적용과 자동차용 Vent 및 ESS 적용처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 원가율 하락으로 수익성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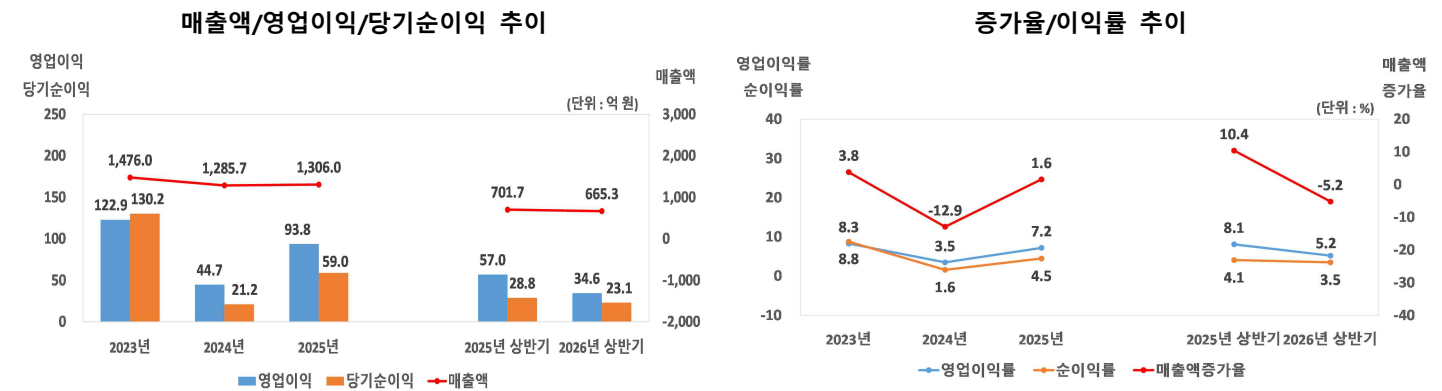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2023년 122.9억 원, 2024년 44.7억 원, 2025년 93.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8.3%, 3.5%, 7.2%를 기록하였다. 2024년 수익성이 크게 약화된 이후 2025년 영업이익이 109.9% 증가하면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2025년 매출 증가율이 1.6%에 그쳤음에도 이익 증가 폭이 컸다는 점에서 외형 확대보다는 원가구조 개선이 수익성 회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원가는 2023년 1,143.3억 원, 2024년 995.7억 원, 2025년 964.7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매출원가율은 각각 77.5%, 77.4%, 73.9%로 2025년에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판관비는 2023년 209.8억 원에서 2024년 245.2억 원, 2025년 247.5억 원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졌으나 매출원가 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하였다. 연구개발비도 2023년 153.6억 원, 2024년 140.0억 원, 2025년 134.6억 원으로 매출의 10.3%를 차지해 기술개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30.2억 원, 2024년 21.2억 원, 2025년 59.0억 원이며 순이익률은 각각 8.8%, 1.6%, 4.5%로 나타났다. 2025년 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178.1% 증가하였지만 20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4.6억 원, 당기순이익은 23.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5.2%, 3.5%를 기록하였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 7.2% 대비 수익성은 다소 낮아졌으나 흑자 기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향후 ESS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매출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회복 여력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부채비율 하락과 유동성 개선의 동반 진행

연결 자산총계는 2023년 1,725.1억 원, 2024년 1,746.2억 원, 2025년 1,897.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6% 늘었는데,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현금자산 확대와 유형자산 증가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이 2024년 164.5억 원에서 2025년 267.6억 원으로 증가하고 유형자산도 688.2억 원에서 792.3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유동비율은 유형자산 처분 및 차입금을 통한 유동자금 유입으로 100.3%, 103.5%, 105.0%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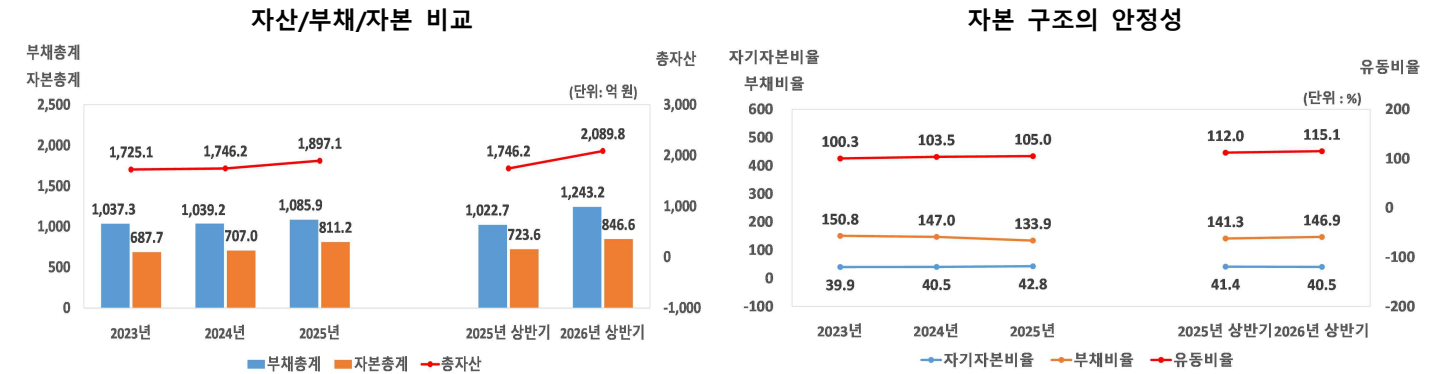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1,037.3억 원, 2024년 1,039.2억 원, 2025년 1,085.9억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자본 확충에 힘입어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50.8%에서 147.0%, 133.9%로 하락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2025년 기준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는 총 720.1억 원으로, 단기차입금 485.1억 원, 유동성장기차입금 72.0억 원, 장기차입금 133.0억 원, 사채 30.0억 원으로 구성되어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높은 구조가 이어졌다.

자본총계는 같은 기간 687.7억 원, 707.0억 원, 811.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순이익으로 이익잉여금 누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유형자산재평가손익 등으로 추가적인 자본이 확충되었다.

2026년 상반기 유동비율은 115.1%, 부채비율은 146.9%를 기록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은 40.5%로 나타났다. 투자 및 자금조달 확대에 따라 부채 부담은 다소 높아졌으나, 유동성 개선과 자기자본 확충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재무 대응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영업실적 개선과 이익 축적이 지속될 경우 자기자본 확대를 기반으로 재무구조의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1,476.0	1,285.7	1,306.0	701.7	665.3
매출액증가율(%)	3.8	-12.9	1.6	10.4	-5.2
영업이익	122.9	44.7	93.8	57.0	34.6
영업이익률(%)	8.3	3.5	7.2	8.1	5.2
순이익	130.2	21.2	59.0	28.8	23.1
순이익률(%)	8.8	1.6	4.5	4.1	3.5
부채총계	1,037.3	1,039.2	1,085.9	1,022.7	1,243.2
자본총계	687.7	707.0	811.2	723.6	846.6
총자산	1,725.1	1,746.2	1,897.1	1,746.2	2,089.8
유동비율(%)	100.3	103.5	105.0	112.0	115.1
부채비율(%)	150.8	147.0	133.9	141.3	146.9
자기자본비율(%)	39.9	40.5	42.8	41.4	40.5
영업현금흐름	84.4	86.3	217.4	76.9	7.6
투자현금흐름	-128.9	-74.6	-147.9	-44.9	-106.7
재무현금흐름	89.0	29.4	30.6	18.3	148.3
기말현금	114.2	164.5	267.6	212.8	322.7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고효율 자성소재는 202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유지하였으며, 2026년 매출은 520.0억 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ESS·충전기·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장치에서 Powder Core, CMC, CT 등의 적용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고객의 수요 유지와 응용처 확대를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향후 전기차 전장화와 SiC 기반 고주파 전력전자장치,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등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질 경우 추가 성장이 가능하나, 실제 매출 확대 속도는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SS는 향후 실적 회복을 주도할 핵심 사업으로, 매출은 2025년 399.4억 원에서 2026년에는 550.0억 원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동사는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BMS, 냉각시스템 및 고전압 차단기 등을 결합한 산업용 ESS를 통신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공급하고 있어 해외 통신 인프라와 에너지 설비의 신규 프로젝트 확보가 실적 확대에 중요할 전망이다. 다만 고객사의 투자계획과 발주시기에 따라 매출 인식이 변동될 수 있어 예상 실적 달성 여부도 해외 프로젝트의 공급일정과 양산 진행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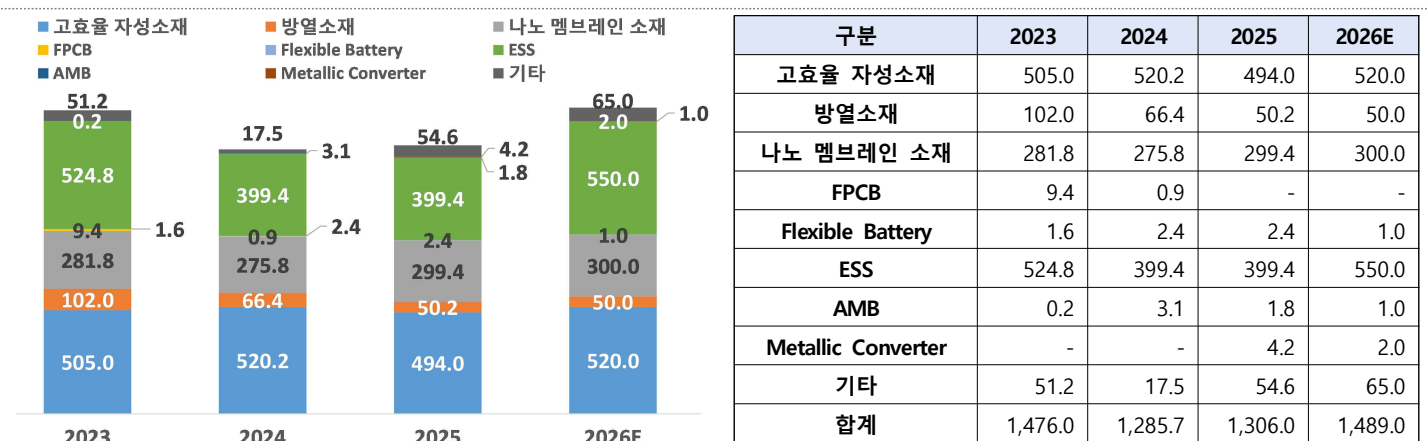
나노 멤브레인 소재 매출은 2025년 299.4억 원으로 확대 후, 2026년에도 300.0억 원 수준이 예상돼 실적 안정성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모바일용 Acoustic Vent 중심의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 전장용 Air Vent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가 추가 성장의 관건이다. 반면 방열소재 매출은 2025년 50.2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6년에도 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단기 내 외형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Flexible Battery, AMB 및 Metallic Converter는 예상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 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특히 Flexible Battery, AMB, Metallic Converter 매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현 단계에서는 실적 기여보다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SiC 파워반도체용 AMB 기판·접합 기술과 Flexible Battery 등은 기존 소재기술을 신규 전방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객평가와 양산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 새로운 매출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2026년 동사의 실적은 ESS의 반등을 중심으로 고효율 자성소재와 나노 멤브레인이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제공하면서 2023년 수준의 외형을 회복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ESS 프로젝트의 공급 확대가 실적 성장의 핵심 변수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노결정 자성소재의 전기차·ESS·데이터센터 적용 확대와 신규 사업의 양산 전환 여부가 추가 성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ESS 프로젝트의 발주시기 변동과 주요 고객 수요 변화, 신사업의 사업화 지연은 실적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고효율 자성소재·산업용 ESS 중심 사업구조를 강화하며 글로벌 생산기반 확대 중

동사는 사업구조를 고효율 자성소재·나노 멤브레인과 산업용 ESS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SiC 파워반도체용 AMB, Metallic Converter, 수처리 등 신규 분야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생산거점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면서 해외 고객 대응과 생산기반 확충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성소재의 적용처는 전기차·ESS에서 피지컬 AI, 고출력 전원장치 등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향후에는 나노결정 자성소재와 산업용 ESS를 주축으로 고객·지역·응용처를 다변화하고, 나노 멤브레인의 자동차·환경 분야 확장과 AMB 등 신사업의 양산 전환이 추가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의 사업구조는 고효율 자성소재와 나노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한 첨단소재, 산업용 ESS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이 보다 뚜렷해졌다. SiC 파워반도체용 AMB 모듈은 매출 발생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고, Metallic Converter와 수처리 필터·모듈 등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 모바일·IT 부품의 일부를 축소하는 대신 전력변환·에너지·파워반도체와 연계된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한편, 베트남 생산거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에는 아모그린비나를 신규 설립한 후, 2025년 추가적인 출자와 생산설비 도입을 통해 현지 생산체계를 확대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도 공장 건물과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베트남 법인은 단순 보조 생산거점에서 글로벌 고객 대응을 위한 주요 제조기반으로 점차 기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해외 수요 증가에 대한 생산 유연성과 원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초기 가동 안정화와 현지 품질·납기 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변화로 판단된다.

사업의 전방시장도 기존 전기차·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에서 보다 넓은 전력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고효율 자성소재의 적용분야에 ESS와 피지컬 AI(Physical AI)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어, 전기차용 전력변환부품에서 로봇·고출력 전원장치 등으로 응용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 확인된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충전기의 전력변환장치와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ESS 수요를 신규 적용 가능 분야로 평가하는 분석도 있으나, 실제 사업화 진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SS에서는 기존 통신·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경험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6년 7월에는 기존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래해 온 글로벌 통신타워 고객과 미국 통신 인프라용 LFP 비상전원 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기존 고객과의 거래지역을 북미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신규 고객을 처음 확보하는 방식보다 기존 공급 레퍼런스를 다른 지역으로 전개하는 전략에 가깝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성장 방향은 나노결정 고효율 자성소재와 산업용 ESS를 양대 축으로 기존 고객의 적용영역과 공급 지역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고효율 자성소재는 전기차 인버터·충전기·ESS 등 기존 전력변환장치에 더해 피지컬 AI와 고출력 전원장치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차의 고전압화와 SiC·GaN 전력반도체 확산, ESS 및 AI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변환장치의 고주파·고효율화가 진행될수록 낮은 손실과 높은 투자율을 갖는 나노결정 소재의 기술적 필요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주요 글로벌 고객의

생산계획과 고객별 인증 일정에 대한 영향이 크고 일본·유럽 선도기업 및 중국계 업체와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 고객 확보와 응용처 다변화가 성장의 안정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ESS는 대형 계통용 저장장치보다는 통신기지국·신재생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의 비상·보조전원 시장에서 공급 레퍼런스를 확대하는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아프리카 통신 인프라 경험을 미국으로 확장하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공급범위를 넓히려는 계획은 동일 고객 내 지역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일본 통신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고객과 지역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ESS는 고객의 설비투자과 프로젝트 발주시기에 따라 공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고, LFP 셀 가격 경쟁과 시스템 안전성, 현지 인증·서비스 역량 등이 사업 확대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사업에서는 SiC 파워반도체용 AMB와 Metallic Converter가 중장기 포트폴리오 확장의 핵심 후보로 판단된다. AMB는 원재료에서 세라믹 기판, 금속 접합 및 방열까지 기술 범위를 넓히고 있어 전기차·산업용 고출력 파워모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Metallic Converter는 선박·발전설비의 배기가스 저감에서 LNG 발전설비 등으로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가 LNG 발전설비 투자로 연결될 경우 관련 환경설비 수요가 간접적인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기존 자성소재와 ESS에 비해 사업화 초기 단계이므로 고객 승인과 양산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성장 옵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노 멤브레인은 모바일용 Vent에서 확보한 방수·통음·통기 기술을 자동차 전장과 수처리·필터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Flexible Battery는 기술적 차별성은 있으나 적용기기의 시장 확대와 고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신규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기보다 자성소재·ESS·나노 멤브레인에서 확보한 기술과 고객기반을 활용하면서 AMB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선택적으로 사업화하는 전략의 성과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모그린텍(12521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9.1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아모그린텍	O	X	X

* 2026년 6월 25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